

“단 한발의 퇴보도 없을 것”

김기덕 감독 손배 청구에 여성단체 “가해자 목소리”

여성·시민단체가 영화감독 김기덕(59)씨의 역대 손배배상 청구에 “전형적인 가해자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력자를 고소하는 등 정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냐”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김 감독에게 우리는 단 한발의 퇴보도 없을 것이라고 전한다”며 “이 싸움은 김 감독이 시작했다면 우리가 정의로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지난달 12일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우회가 자신의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고발한 MBC PD수첩에 관련 내용을 지원하고,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제29회 유비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취소 요청을 보냈다는 것이 이유다.

김 감독은 소장에서 “PD수첩과 민우회의 활동으로 영화 해외 판매와 개봉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로서 정당한 행동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로 공개적인 명예훼손을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연젤라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영화감독 김기덕 3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탄 기자회견’에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김 감독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함께 김 감독이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D수첩 제작진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영화 ‘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2017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는 김 감독이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고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긴 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기 때문이다. PD수첩 방송도 허위사실이라고 불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책위에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여성영화인모임·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6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뉴스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신설... 문화재도 복과 함께

문화재청이 8일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단’을 결성했다. 민족 공동유산인 북한 소재 문화재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남북 간 협력 확대와 체계적 남북 교류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문화재청의 임시조직이다.

1단 2팀 체제로 운영되며, 문화재청 차장이 사업단장, 문화재청장이 교류협력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조사연구팀장을 맡는다.

사업단은 올해 추진하는 남북 문화재 교류를 뒷받침하는 각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천연기념물 크낙새 공동조사, 건원릉에 북한 함흥 역사 이식, 비무장지대(DMZ) 역사유적

공동조사와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남북 문화재 교류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창구 구실도 한다.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도 8일 정식 출범, 사업단 활동과 정책 수립을 돕는다.

이날 서울 필동 한국외국어대에서 첫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하는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은 50명이 넘는 문화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DMZ 보존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남북문화재 제도 비교분석,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 포럼을 열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

동물전염병 대처, 살처분이 합당한가?

문선희 ‘문다’... 동물 살처분 매몰지 100곳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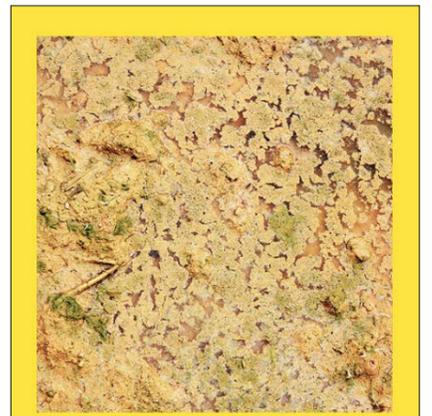
“돼지는 공중에서 비둥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오리는 뒤둥뒤둥 쫓기다가 구덩이 속으로 후드득 굴러떨어졌다. 영문을 모른 채 두리번대던 동물들 위로 흙더미가 쏟아졌다. 2014년, 매몰지의 범정 발굴 금지 기간이 해제되었다. 천만 마리의 죽음을 삼킨 땅은 3년 만에 온전한 곳이 되었을까?”

사진가 문선희(41)가 2년동안 동물 살처분 매몰지 4799곳 중 100곳을 찾아다니며 기록한 사진수필집 ‘문다’를 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처음 시작된 2000년 이후 기축 전염병으로 살처분 당한 동물은 980만마리를 넘었다. 책은 매몰지를 찍은 사진을 사진전과 같은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작업 과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갓 태어난 동물의 치사율은 50퍼센트에 달하지만 다 자란 동물의 치사율은 1~5퍼센트 남짓으로 2주 안에 자연치유가 가능한데 현재 국내 동물전염병 예방과 대처, 살처분 방식이 합당한가”라고 묻는다.

또 동물전염병의 근본적 문제이기도 한 밀집형 사육시설 문제, 살처분으로 오염된 땅의 회복 등에 대해서도 논한다.

6~12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나무에서 출간기념 사진전을 연다. 6일 오후 5시 개막 행사에는 전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 유소운 참사랑동물복지농장 대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선희의 사진수필집 ‘문다’ 표지. 동물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기록

이 참석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동물권 행동기원과 책공장더불어출판사 주관으로 동물 전염병 살처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2017년 조류독감 발생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후 자금껏 행정소송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사례를 밝힌다.

책 값의 6%는 참사랑동물복지농장에 기부한다. 작가는 “책 한권의 기부금액은 닭 한 마리의 15일치 사료”라고 했다. 192쪽, 1만3000원, 책공장더불어

/뉴스

오감자극 아침맛이... 현세로 ‘바르셀로나, 15일의 자유’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시간 동안 나는 갱년기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았다.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갱년기를 극복하는 신통방통한 묘약이 내게는 일상탈출이었던 모양이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고, 나만의 위한 선택을 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동안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게 해 줄 모든 에너지를 얻었다”

사진가 현세로씨가 ‘바르셀로나, 15일의 자유’를 냈다. 바르셀로나 곳곳을 누빈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이다.

갱년기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과 딸을 뒤로 하고 바르셀로나행 비행기에 오른다. 대학시절 친구와 함께 갔던 바르셀로나에서 보물간 머무르며 행복을 느낀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모든 욕구를 사라지게 할

정도로 극한의 시간들은 사라졌지만,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가 나의 일상, 이웃의 일상을 바라본다. 바르셀로나에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시간들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모든 우울을 갱년기 탓으로만 돌리던 나를 해방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날,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광장의 독특한 숨결이 코끝을 간질이는 기분이다. 그때 마셨던 커피 향과 함께”

“눈을 감았다 뜨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로웠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형형색색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새들의 지저귀도 감미로운 오페라의 선율처럼 들려왔다. 정원을 수놓은 꽃들과 아보카도나무의 향기가 아침이슬을 머금은 채 건물 안으로 스며든다. 언제 이따로 오



감을 자극하는 아침을 맞이해본 적이 있었던가. 자연의 한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126쪽, 2만5000원, 갈나섬

/뉴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